



Jeremy Bressman 변호사, IsraelDesks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법적 추세를 내다보다

2020 06 22

출판물: *IsraelDesks*

법률시장이 코로나19 시국에 적응하는 지금, 텔아비브에서 활동하는 Jeremy Bressman 변호사는 최근 *IsraelDesk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현재 관심 있게 지켜보는 추세를 논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간 유동성이 급해진 회사, 거래상대방 및 투자자가 기존의 사해 및 불법행위를 적발하려는 전에 없는 결의”라고 Jeremy Bressman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내놓은 대규모 정부 지원금 역시 사해행위를 저지를 기회가 되며, “이는 노련한 감시인, 조사관 및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유발합니다.”

Jeremy Bressman 변호사가 꼽은 두 번째 추세는 회사가 자산, 특히 “지식재산권 등 무형 자산”을 현금화 하려는 노력입니다. “특허는 시장 연동성이 없고” 또한 “최근 미국 법체제는 특허 강제집행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달라진 지금” 경제불황은 이러한 자산 현금화를 시도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Jeremy Bressman 변호사는 또한 로펌 내부의 변화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희 법무팀과 상업부 간의” 대화 덕분에 직원 전원이 로펌의 최신 계획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변호사들이 수집한 정보가 로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체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